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NOVEMBER / DECEMBER 2023

통합의료원보 VOL. 80

11/12

SCH

순천향 정신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겨울 사랑

詩 _ 박노해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 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수 있겠느냐

눈보라 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위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 으로 헤아리고
내 언 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아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순천향

2023. 11+12 VOL. 80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06

FOCUS

ISSUE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첨단 의료시스템으로 세계 위상 높인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네팔 취약지역에 인간사랑 전파
-2016년부터 네팔 취약지역 어린이에게 인슐 펠쳐
정수호 교수, 다빈치Xi 로봇수술 1000례 돌파
-전국 병원 산부인과 교수 중 로봇수술 건수 1

SPECIAL

경북 중서부권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나다
-정일권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

순천향대 부천병원, 항저우 아시안게임 의료지원
-김호중 교수, 근대5종 금메달리스트
이지훈 선수 담당
정수호 교수, 다빈치Xi 로봇수술 1000례 돌파
-전국 병원 산부인과 교수 중 로봇수술 건수 1위

LOVE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의료진에 감사"
-김혜영 간담체외과 교수 & 남기문 환자

두경부암 환자 괴롭히는 '구강점막염' 새 치료법
-순천향대 천안병원 두경부암 다학제팀,
국내 최초 효과 입증
로봇 인공관절 수술 시작

HISTORY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료봉사활동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료혜택

DOCTOR

34년간 지역 주민 건강·안전 살피 온 '巨木'
-우국현 순천향대 구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KNOWLEDGE

결근의 요인 '직장 내 폭력'이 가장 커
-결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해
국가 관리 필요

VISIT

각 분야 최고 전문가 모인 '드림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 증상과
치료법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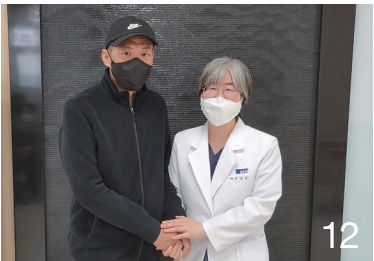
"학원교육계에 나눔의 문화 확산시키고 싶어요"
-이재식 국어논술학원 원장

발견 어려운 '담도암',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최첨단 담도내시경 '스파이클래스' 치료 효율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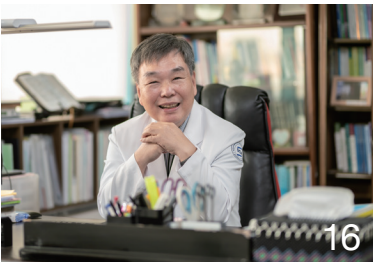
"눈물이 많이 나요"
-눈물소관 관류검사 후 치료법 찾아야

EQUIPMENT

NEWS



12



16



20



표지설명

송년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환우 여러분과 순천향 가족의 따뜻하고 축복 된 시간이 될 것을 기원하는 의미로 금빛 크리스마스트리로 장식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순천향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새해에 빕겠습니다.

통권 80호

발행일 2023년 11월 17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종, 배지연, 이상원, 유채민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연락처 02-710-3166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첨단 의료시스템으로 세계 위상 높인다

몽골, 이라크,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등 의료진 대상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몽골, 이라크, 볼라비아,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국의 의료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순천향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먼저 몽골 간호사 역량강화사업은 몽골 보건부 보건개발원과 함께 10월 16일부터 11월까지 서울병원에서 진행했다. 2021년 체결한 몽골 의료진 교육이라는 포괄적 업무협약 아래 진행되며, 총 100명의 간호사를 5번에 걸쳐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몽골 보건부 보건개발원 간호사 초청연수 수료식



이라크 간호사 연수생

프로그램은 서울병원 간호부 간호교육팀에서 총괄하여 교육 내용의 기획부터 수행까지 전담하고 있다. 교육은 각 차수별로 5일간 진행되며 간호사로서의 기본에 충실하자는 ‘Back to basics’를 주제로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신규 간호사 교육 체계, 환자안전과 간호 질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병원 이정재 병원장은 입교식 행사에서 “이번 연수를 위해 우리 병원 간호부에서 열심히 준비해주셨다. 몽골 간호사분들이 많이 배우고 경험하길 바란다”며 몽골과 한국의 의료진들을 격려했고, 몽골 간호사들은 1차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간호 체계를 눈으로 보고 배우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1차 교육에 함께 한 몽골 보건부의 바트바야 부장은 “한국의 발전된 의료시스템과 간호 수준을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며 교육을 준비해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이라크,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국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순천향은 교육 프로그램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프로그램 기간에는 이라크 의료진 13명(의사 4명, 간호사 7명, 영양사 2명), 엘살바도르 의료진 9명(의사 9명), 볼리비아에서 23명(임상병리 7명,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16명)이 참여했고,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병행해 볼리비아 현지에서 있는 25명이 교육 참여 기회를 얻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개원 앞둔 새 병원 의료진 양성에 매진

이라크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은 순천향 의료원이 2018년도부터 수행해온 프로젝트로써 이라크 바그다드에 한국을 대표하는

KOICA 중환자 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순천향의 교육팀은 개원을 앞둔 상황에 새 병원에서 근무하게 될 의료진을 양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서울병원, 부천병원, 천안병원이 모두 참여해 서로가 가진 장점들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을 해준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서울병원에서는 중환자 간호의 기본적인 이론과 그에 따른 실습을 병행했으며, 특히 현지 병원에 꼭 필요한 내용에 집중했다. 그 후 간호사들은 부천병원으로 이동하여 중환자실에 상주하며 실제 중환자실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간호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했다. 이라크의 중환자 전문의도 함께 참여하여 중환자실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한팀이 되어 교육에 참여했다. 의사들은 부천병원과 천안병원의 각 진료 분야에서 교



볼리비아 임상병리 체계 교육 수료식

육에 참여하였으며, 중환자의학, 호흡기내과(이상 부천병원), 정형외과, 외과(이상 천안병원)에서 모두 3주간의 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 기간동안 기본소생술 자격을 취득하였고, 국내에서 열린 유관 학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각각의 임상적 전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실에서 기본이 되는 감염관리에 집중하였고, 중앙공급실, 영양팀, 약제팀 등과 협력해야 함이 교육에서 강조되었다.

볼리비아에 검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재까지 총 73명의 의료진이 초청 연수에 참여했으며, 개원 전 공의 및 시설기사, 의료기사 등 다른 직종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개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이 기간에 중남미에서 온 의료진들도 또 다른 교육에 참여하였다. 엘살

바도르 각지에서 일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 9명, 볼리비아 수도 라파즈에서 임상병리 전문가 7명과 볼리비아의 산과 전문 의료진 16명이 순천향을 찾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검사 역량의 한계를 경험한 볼리비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번에 7명의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 ‘감염병 대응 체계’, ‘국가 표준검사실 운영’ 등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들은 특히 감염병이 창궐하는 사태 속에서 일차 의료 및 대학병원과 같은 상위기관, 진단검사센터 간의 협력 연계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앞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함께 이끌어 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볼리비아 진단검사센터는 현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센터의 건축과 검사장비 지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료



엘살바도르 연수생 입교식

진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볼리비아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이환율 감소’라는 목표로 교육을 지난 3년간 계속 수행해오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차수로 볼리비아 의료진들이 순천향을 찾아 그동안 비대면 교육, 현지 교육을 수행하며 느꼈던 갈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교육에 참여하면서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함께 참여했던 볼리비아 엘알도 한국병원장 마리아(Maria)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이뤄낸 모자보건의 역사가 인상적이었다. 특히 순천향병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번 프로그램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했다. 이와 동시에 비대면 교육도 병행하였는데 ‘볼리비아 산모 관리 원격의료 역량 강화’를 주제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팀에서 교육을 전담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나다

내시경 수술 분야 세계적 권위자… 국내 최초 미국 학회지 논문 게재

지난해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한 정일권 병원장은 위암, 식도암, 내시경수술 등 위장관질환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서, 특히 내시경 수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내시경수술용 칼’ 등을 개발하였다. 국가암검진 제개정 위원회 위암 분과 위원장으로 공헌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락천의학상, 월봉학술상, 과학기술상, 순천향의대 올해의 우수논문상 등 수상 이력도 화려하다. 정일권 병원장은 10년 이상 천안병원에서 주요보직을 역임하였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미병원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북 중·서부권 최고 거점 병원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진정한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하는 중심에 서 있다.

글 전진용 사진 김현아

순천향대 구미병원장 취임 이전에도 천안병원에서 연구활동 뿐 아니라 많은 주요보직을 역임하시고 구미병원장으로 취임 하셨습니다. 천안병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천안에 있을 때는 기획실장으로 여러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른 시기에 병원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병원 경영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으로 서 병원 전반에 걸친 기획 업무와 중요한 병원 결정사항들을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논의하며 병원의 발전된 미래를 구상하는데, 열정을 쏟았었습니다. 또한, 병원 경영뿐 아니라 연구 활동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위암 내시경 치료에 대한 대규모 성적을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당시 저희 순천향대학병원, 고려대병원, 서울삼성병원과

순천향대 구미병원장

정일권





새외래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순천향 인간사랑 백년 약속 기원식수

함께 공동 연구로 제가 직접 기획하여 발표한 논문인데, 우리나라의 위암 및 위암 전 단계 환자에서 개복하지 않고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의 우수한 기술과 성적을 외국에 공식적으로 알렸던 첫 사례였습니다. 제가 1996년 처음 천안병원 교수가 된 다음 해 1997년, 미국 학회에 소화성 궤양 출혈에 대한 내시경적 지혈술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고, 오랜 심사 끝에 1999년 1월, 국내 최초로 미국 소화기 내시경 학회지에 게재되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내시경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이런 오랜 기간의 연구 활동과 성과를 통해 여러 학술상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한 소화기 내시경 치료술, 내시경 위암 수술 등의 연구 활동으로 150여 편의 논문을 외국 저널에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천안병원도 서울병원 못지않게 우수한 연구와 논문을 만들어 병원 위상을 높이겠다는 각오로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 논문들이 당시 국내 최초의 논문들이 많다 보니 1999년 발표 이후, 2008년 발표 후 과학 논문 인용 지수가 각각 소화기학 분야에서 10년 이상 전국 1위였습니다. 이를 통해 락천의학상, 월봉학술상, 과학기술상, 순천향의대 올해의 우수논문상 등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몇 년 전 수상한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제가 공동으로 개발한 내시경수술용 칼의 유용성을 보고한 논문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Using a Novel Versatile Knife: An Animal Feasibility Study(with Video Clinical Endoscopy)’으로 수상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내시경 칼은 여러 기구와 병용해야 하는 기존의 칼에 비해 다른 부속 기구의 도움 없이도 한 개의 칼만으로도 복잡한 수술 과정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어 경제성, 유용성, 안전성 면에서 월등한 기능을 갖춰 현재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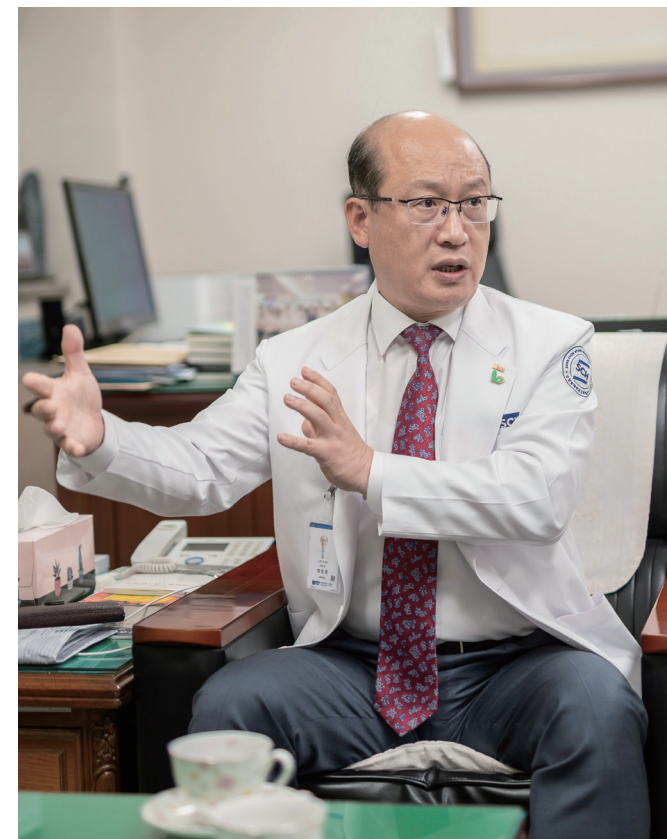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도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짜고 자극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진 나라입니다. 국내 암 환자 중 발병률이 매우 높은 위암은 40대 이후 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10~30대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를 불문하고 발병률이 높은 위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암 정복 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 5대 암 검진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앞서가는 정책이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 암 검진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가 정

책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위암 분야 암 정복을 위한 새로운 시행안을 제개정하게 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천안병원을 떠나 이제 구미병원에서 병원장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구미병원 관계자들은 병원장님이 오시면서 병원 전체 분위기부터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들 합니다. 병원 경영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셨습니까?

구미병원의 경영이 다소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구미병원에 와서 느낀 점은 교직원 한 명, 한 명은 모두 근면 성실했지만, 각자에게 숨겨져 있는 잠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낙후된 건물과 시설들로 인해 오랜 시간 굳어진 교직원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고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미병원의 근본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순천향 재단에서 새 외래관 건설을 기획해 주셔서 현재 일부 진료과들이 이전하여 진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든 교직원의 노력으로 이제는 새로운 순천향대 구미병원으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순천향에 도움을 받고 순천향을 사랑하는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믿음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병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과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느덧 제가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순천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및 학회적 활동을 하다 보니 20살 이후 제 인생 모두는 순천향이 만들어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순천향의 은혜에 보답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구미병원 병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제가 해야 할 일, 알아야 할 정보 등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와 함께 제가 생각해 왔던 순천향대 구미병원이 나아가야 할 이상들을 접목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병원 교직원, 주변 개원의, 순천향 동문 등 지역사회 전체와 소통하며 호응하고 순천향을 바라보는 침체된 내·외부 시각들을 하나둘씩 바꿔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한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생명존중’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미병원이 경북 중·서부권 최고 거점병원으로 새롭게 재탄생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성공적인 사업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사례 중 경북 지역 내 유일한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입니다.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는 소아청소년 전문의 5명과 소아응급전담 간호사 12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응급실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성인과 소아의 진료 공간을 분리하고 어린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365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전문적인 응급의료시설과 이비인후과용 내시경 장비, IV 램프 등 최신 의료장비도 도입됐으며, 응급의학



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여 양질의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소아응급환자 내원 시 신속한 환자 분류와 치료를 하는 등 진료의 효율성 및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는 폐과 위기며, 지역 병원들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올해 1월 개소 전까지 병원 내·외부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와 혁신적 협업과 구미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를 경북 중서부권에서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미병원과 구미시의 협력 및 상생의 훌륭한 결과들이 수 많은 신문과 방송에 소개 될 수 있었고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 벤치마킹 되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구미시 장님과 그 당시 도움 주셨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구미병원이 새롭게 외래관을 건립하고 있어 더욱 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 외래관은 각 질환별 원스톱 진료체제를 갖춘 총 13개의 특화

된 전문진료 센터로 2024년 2월 말 완공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연면적 9064.21㎡(증축 부분 6110.26㎡, 리모델링 부분 2953.95㎡)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되며 외래 진료 대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외래 진료센터를 수직적으로 집약하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5층까지 설치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환경과 전문화된 진료 공간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 노인성 질환, 급성기 질환 등 지역 질병군을 중심으로 층별 전문질환센터를 구축하고 질환 중심의 원스톱(One-stop) 센터로 구성하여, 총 21개 임상 진료과가 13개의 특화된 센터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새 외래관 건립은 구미병원이 인간사랑의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경북 중서부권 최종 거점병원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추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미병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병원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미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지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미병원 외연과 시설, 활용도가 한단계 더 발전함과 동시에 구미병원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지구 내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음압병동을 갖춘 감염병센터를 기획 중입니다. 이는 평상시에는 호흡기 센터나 감염내과 진료를 담당하다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사회 주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는 곳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입원실을 갖춘 모자보건센터를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구미시 인구가 점점 줄고 특히 젊은 인구들의 삶의 질 개선 문제가 구미시 발전의 가장 큰 현안이어서 구미시와 순천향이 협의하여 젊은 인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이탈을 막고 20여 년 전처럼 소아과, 산부인과가 활성화되는 구미, 경북 중서부 지역 의료의 혁신을 이루어 보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응급실을 보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부족한 스태프 수를 더욱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취임 후 17명의 전문의가 충원되었고, 이는 우리와 같은 지방병원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인력 보강에 더욱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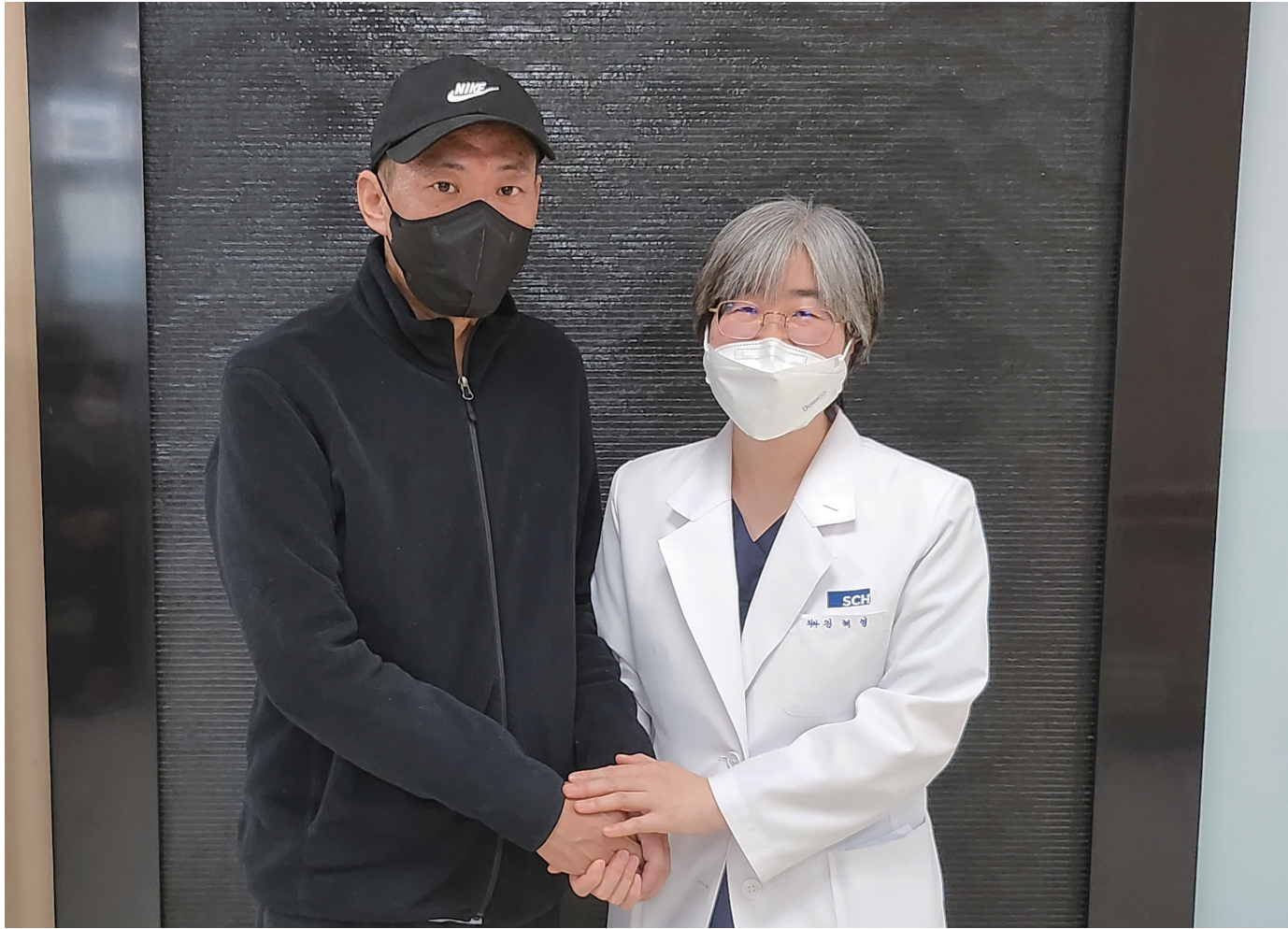
현재 90억 원대의 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구미병원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다양한 병원 발전을 통해 월 매출 100억원, 120억원, 150억원을 순차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환자뿐 아니라 구미병원 교직원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터,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교직원들이 좋은 일터에서 행복해야 환자들에게도 더욱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행복노트’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감사하거나 감동한 일, 행복한 일 등을 매일 노트에 기록하고 이를 다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매월 3명을 선정해 시상하여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동기 부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내는 이 공간에서 작고 소소한 것들이지만 감사를 느끼고 우리와 환자들과의 여러 감동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을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이미 많은 사원이 모여 병원에서 생활하는 의료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특별한 행복이야기를 책으로 발간을 할까 고려 중입니다. 여러 동호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매월 1회 이상 모임을 하게 하여 다른 직종의 교직원 모두가 서로 이해와 소통으로 하나 되어 우리병원이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장 부임 후 병원 혁신과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이를 잘 따라주고 함께 해 온 교직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고맙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병원장을 믿고 따라 주었기에 경영 성적도 높일 수 있었고, 교직원 상호간에 더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 외래관 개관과 아울러 경북 중서부권 최종 거점병원의 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의료환경에서도 순천향 재단과 의료원 산하 병원 모두가 새로운 건물을 만들게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심에 감사하며, 구미병원은 지금보다 더욱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도약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병원, 지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 모든 환자들이 다시 찾는 병원으로 함께 나아가 순천향 인간사랑 백 년 약속을 이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북 중서부권 최종 거점 병원이 되고, 순천향 인간사랑 백년 약속 완성이 되어, 순천향 인간사랑은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상을 더욱 가치있고 아름답게 하는 영원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의료진에 감사”

응급조치로 ‘알코올성 간경변’ 극적 회복

40세의 젊은 나이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남기문 환자는 의식조차 없는 혼수상태였다. 말기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 간이 안 좋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할지는 환자도 가족도 몰랐다. 환자를 살릴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신속한 ‘간 이식 수술’뿐이었다.

글 전진용 사진 안용현

남기문 씨는 하던 사업을 잠시 접고, 어머니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 생활하고 있었다. 간혹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곤 했지만 몸에 큰 이상을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 연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이후로 몸에 급속도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식사하는 것이 불편했는데 오히려 살은 점점 찌더라고요. 한 74kg 하던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불었습니다. 그래도 그 외에는 아주 큰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증세가 심상치 않아 걱정은 했지만 병원을 찾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급속도로 증세가 악화하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것이다.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 김혜영 간담체외과 교수는 “말기 간경변으로 간이식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응급도 기준으로 40점 만점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의식마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간이식 외에는 환자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극적으로 ‘뇌사자 간이식’을 시행하다.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천안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간이식 수술을 위한 등록부터 신속하게 마쳤다. 오직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등록 3일 만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뇌사자 간이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식팀은 뇌사자가 있는 타 의료기관으로 가서 뇌사자 간을 적출하였고

이를 신속히 본원으로 이동하여 곧바로 간이식 수술에 들어갔다. 5인 이상의 교수진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이식팀이 남모 환자의 수술에 집중했다. 환자의 중증도가 최악의 상황인 만큼 수술 과정은 매우 힘들었으며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이었다. 간이식 수술을 직접 진행한 김혜영 교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약 10시간에 걸친 수술이었습니다. 이식 전에 간이 많이 나빠지면서 위장관 출혈도 있었고 혈관 상태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수술을 위해 개복을 했을 때도 피가 고여있는 혈복강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뇌사자 간이식 상황에 비해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더라도 수술 후의 경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환자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식 전부터 간성혼수 상태로 간의 상태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폐렴, 각종 감염, 그리고 뇌출혈도 있었습니다. 위장관 출혈로 피를 토하고 객혈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희망을 되찾다

여러 번의 위급한 상황과 맞닥뜨리며 중환자실에서는 오랜 시간 의료진의 사투가 이어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결국 환자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여러 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지만, 의료진의 노력과 환자의 의지로 이를 이겨냈다. 현재는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환자는 건강을 되찾았다. 다소 수척한 모습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천안병원을 찾은 남기문 씨는 김혜영 교수와 의료진과 반갑게 마주했다. 남기문 씨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상 컨디션의 80% 정도까지 회복된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온 남씨의 어머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아들이 수술하고 치료받으면서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아직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혜영 교수를 비롯 모든 의료진에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혜영 교수도 “간이식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인 만큼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간이식은 평생 관리를 해야 하기에 환자 스스로 이제 철저한 자기관리로 더 건강한 모습을 되찾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화답했다. ■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항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항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 질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고

“질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 이다”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 환자 앞에서 호언장담하지 않고 의사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래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치료에 임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서 박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한 번 해봅시다”라고 말하곤 했다. 이는 치료자의 의지가 배어 있는 한 마디였지만 어쩌면 그 말은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에 서 있는 환자들 앞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을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병원에는 남다른 점이 있었다. 시스템 자체가 의사는 환자의 경제적 능력 등 신상정보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국내에서는 유일했다. 동일 질환의 경우 환자 일 인당 진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낮다. 다른 병원 갔던 환자들이 우리 병원으로 발 길을 돌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것에서 의사로서 프라이드를 느낀다. 환자에 대한 배려가 치료의 기본이라는 생각, 그것이 의사로서 프라이드와 직결됐다. 모든 분야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진다. 그런 면에서 많은 농민 환자들이 찾아오는 천안병원은 어쩌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천향 병원 경영의 1순위는 환자라는 원칙이다. 대형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천안, 구미, 부천에 병원을 세운 설립자의 뜻 또한 순천향의 경쟁력이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순천향병원에는 병원의 매출 규모나 환자 숫자만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서 박사는 의사로서 명성이 대단해서 실력도 출중했지만, 무엇보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의사 정신에 투철했다. 항상 환자 입장에서 생각했다. 아마 명의라고 한다면 그런 인물이 적할 것이다. 훌륭한 인품을 갖추지 못한다면 최고의 의사라고 하기 뭔가 부족하다. 초창기 순천향의 젊은 의사들에게 서 박사는 의사 이상의 특별한 존재였다.



인간을 이해할 줄 아는 의사, 인간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다

순천향의 정신은 인간 사랑의 정신이다. 무한경쟁 운운하는 삭막한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 따뜻해서 지나치게 나약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따뜻함으로 세상을 품으라는 것이 설립자의 뜻일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을까. 의사가 될 사람은 실력은 물론 마음이 따뜻하고 인간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를 최상위로 잘하면서 그런 품성까지 지니기는 어렵다는 것일까. 순천향이라는 이름은 인간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 박사는 항상 환자는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고치는 것이다. 의사는 단지 이러한 하늘의 뜻을 돕는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 박사는 한 사람의 개업의로서 한국 최초로 의과대학을 설립한 강한 개척정신과 진취적인 면모를 갖춘 인물이었다. 한국의 사립대학교 의료원 제도 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의학교육 뿐만 아니라 의료 행정가로서 우리나라 의료계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서 박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의사로서 병고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인술(仁術)을 베풀고자 했다. 서 박사는 ‘천리에 따르는 것이 인간 삶의 순리’라는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다. 이를 그대로 한문식으로 표현한 게 순천향(順天郷)이다.

“순천향이란 말이 지닌 뜻에서 병원 경영의 철학과 대학 설립 정신을 헤아려 볼 수 있다. SCH

34년간 지역 주민, 건강·안전 살피 온 ‘巨木’

정년 후에도 명예교수로 연구 활동 지속…‘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목표

직업환경의학은 직업과 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손상과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다루는 전문분야이다. 구미는 도시 특성상 공단으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사고 등이 적지 않기에 순천향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역의 역할도 남달랐다. 지난 1989년부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과 인연을 맺고 있는 우극현 교수는 34년 넘도록 구미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 온 산증인이자, 구미를 지키는 ‘거목(巨木)’과도 같은 존재이다.

글 전진용 사진 김현아

직업환경의학은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과 ‘환경의학(Environmental medicine)’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업의학은 노동자의 손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전문분야로 과거에는 산업의학(industrial medicine)이라고 불렀으나, 대상이 최근 1, 2차산업의 특정 직업병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직업 관련 질환으로 확대되고, 의학의 개념이 건강증진까지 확대되면서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의학은 작업장 외부의 환경에서의 노출로 야기되는 손상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다루는 의학의 전문분야이기에 공단에 위치해 있는 구미병원에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했다. “그동안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해 연구하고,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많은 위험요소와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는 구미공단 근로자들의 건강을 살피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그동안의 저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34년간 구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발전에 기여

경북의대 전문의 과정을 마친 후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친 우 교수는 이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과 인연을 맺었다. 이때부터 예방의학과 전문의인 우 교수는 구미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탄생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동안의 모든 길을 닦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업환경의학과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구미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전국에서 톱 5위안에 드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는데 모든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요소를 찾아 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미는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34년을 함께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냈습니다. 구미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이와 함께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역시 큰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지역 내에는 우리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비록 정년을 마쳤지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와 활동으로 여전히 지역주민들과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우극현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시 ‘건강지킴이’로 대활약

우 교수의 대표적인 구미 지역 내 업적은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경상북도 구미 4공단 불산 가스 누출 사고의 조사를 책임졌던 일이다. 직접 원인은 작업 노동자의 실수였지만, 회사 경영진의 안일한 생각과 감독 당국의 허술한 관리, 지역 자치단체의 재난 사고 초동 대처 미흡이 문제를 키운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언론 보도 역시 극장 보도, 과학적 근거의 미흡으로 사고 대응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우 교수는 이 사고가 향후 지역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건강영향조사단장으로 모든 책임을 완수했다. 우 교수와 구미병원 의료진은 자체적으로 ‘불산 진료전담반’을 조직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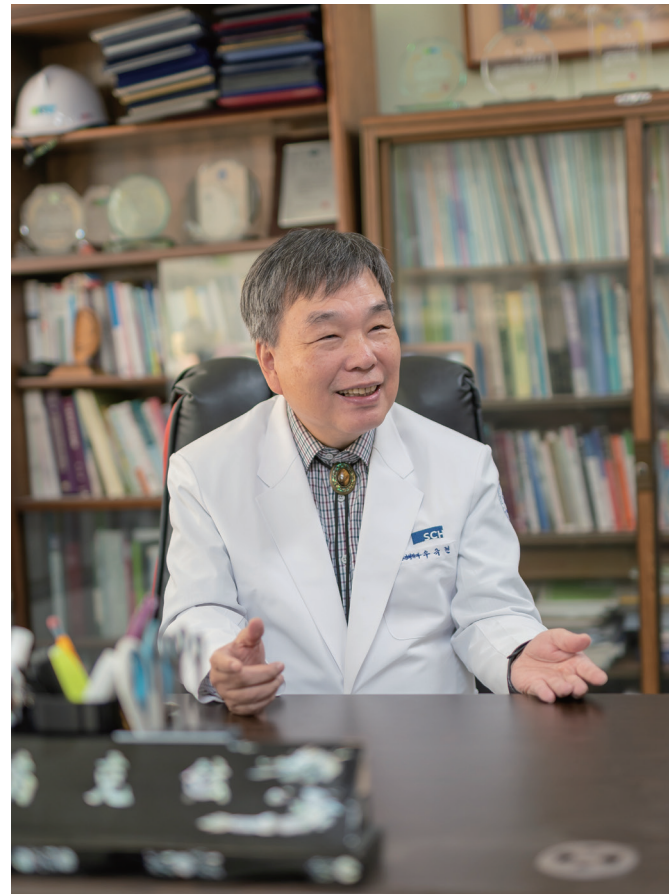
니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일 역시 우리의 일입니다. 사고 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피해나 질병 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 교수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과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지금도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회장과 환경부지정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여전히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

선교·사회단체 등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나서

우 교수는 정년이 지났음에도 부족한 후배양성을 위해 명예교수로 활동하며 후배양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구미요한선교센터’와 ‘사회적기업 참살이’에서 이사로 활동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들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을 위한 수많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 누군가가 그동안 구미병원에서 제가 담당했던 일을 잘 맡아줘야 하는데 여전히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면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 교수는 마음속의 인생 제2의 목표가 생겼다고 전했다. 구미 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일명 타임달러와 코프러덕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말한다. “구미 역시 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또한, 불우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지역사회가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 교수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여러 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문제, 보건복지, 주택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 지역사회 병원이나 의료기관들도 한계가 있고 요양원 같은 곳은 마치 인생의 마지막 코스가 되어 버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에드가 칸의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저서를 통해 제안한 타임달러 제도와 도움을 받는 분도 호의적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하므로 자존감을 되찾게 되고 아울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는 코프러덕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구미



“구미병원 설립 당시 구미라는 도시에 이런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결정과 실천을 통해 구미병원이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그동안 임무를 잘 완수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는 저의 제2의 고향인 만큼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델을 실현하는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반드시 구미에서 그 꿈이 실현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구미시민들을 위한 큰 집으로의 역할에 보람

우 교수의 가장 큰 긍지는 구미병원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한 큰 집으로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에 자신도 보탬이 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창립자인 서석조 박사의 큰 뜻을 함께하며 구미병원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구미병원 설립 당시 구미라는 도시에 이런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결정과 실천을 통해 구미병원이 지

역주민과 근로자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그동안 임무를 잘 완수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 교수는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구미병원과 구미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며 보람을 느껴왔지만 분명 또 다른 본인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구미병원과 더불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 교수가 지금까지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온 발자취를 볼 때 여전히 구미를 지탱하는 튼튼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 교수가 꿈꾸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이 하루빨리 완성되어 구미가 그 어느 도시보다 주민들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



각 분야 최고 전문가 모여 완벽한 팀워크 발휘

로봇수술 등 국내 최고 수준…분야별 신기술 수술법도 직접 개발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 머리, 구강, 침샘, 기관, 식도, 갑상선 등의 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다양한 질환을 다루는 분야다. 각 기관마다 매우 다양한 암 등 중증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각종 암의 경우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대형수술도 적지 않다. 특히 서울병원 이비인후과는 각 분야 최고 전문의들이 뭉쳐 다양한 수술에 최첨단 기법을 도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한다.

글 전진용 사진 최종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비인후과는 변형권 교수(과장)를 비롯해 각 분야 5명의 전문의가 이끌고 있다. 국내 이비인후과 치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두경부, 귀, 코 분야 전문의들로 구성돼 국내에서 최고의 치료 성적을 자랑한다.

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전문화된 진료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청력검사실, 평형 기능검사실, 코 기능 및 알레르기 검사실,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검사실, 후각 기능검사실, 음성 검사실 등 첨단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관련 질환에 신속한 진단과 최적화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첨단장비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술 성과는 국내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국내 의학계를 선도하고 있다.

최첨단 로봇 수술기 다빈치 xi 도입

이비인후과 분야 중 뇌와 눈을 제외한 머리부터 목까지의 모든 질병을 다루는 두경부(구강, 인후두부, 침샘, 갑상선, 목)의 경우 수많은 암이 존재한다. 이에 서울병원 이비인후과는 이런 수술에 최첨단 로봇 수술기인 ‘다빈치 xi’를 도입해 더욱 완벽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로봇수술은 두경부암, 갑상선암 등에 적극 적용되고 있으며 수술 성과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변형권 교수는 이 분야를 선도하는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변 교수는 원래 복강경 수술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수술 기법을 이비인후과 영역에 적용해 편도암, 설기저부암, 후인두암, 하인두암 등에 경구강 로봇수술을 하거나, 갑상선암, 경부림프절전이암 등 목의 종양에는 로봇경부수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두경부암·갑상선암 분야 최고의 전문성 보유

서울병원 이비인후과는 현재 병원 내 전문센터인 두경부암센터, 로봇수술센터와 전문클리닉인 갑상선질환클리닉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최고의 전문성으로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비인후과는 두경부암 치료를 위해 종양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성형외과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재활의학과와 함께 긴밀한 다학제 체계를 이루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갑상선 질환에도 로봇수술 등을 통해 최고

첨단장비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술 성과는 국내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국내 의학계를 선도하고 있다.

의 치료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갑상선 양성종양이나 초기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첨단 로봇수술을 통해 과거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미용적, 기능적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비인후과는 후이개 접근법으로 한 로봇 갑상선 절제술을 통해 갑상선 절제술 후에 원치 않는 얼굴이나 목에 발생한 보기 흉한 상처를 없애는 등의 고난도 로봇수술을 완벽히 실현하고 있다.

코·귀 질환, 각 분야 최고 전문가 포진

이비인후과의 강점은 두경부, 갑상선 분야뿐 아니라 코와 귀 분야에도 분야 최고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귀를 담당하고 이치규 교수는 난청을 비롯한 귀 분야의 모든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약물치료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시술과 수술을 병행해 치료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청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균형감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심하게 손상돼 영구적인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도 여러 첨단 시술과 수술을 응용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난치병인 돌발성 난청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며 수술 성과를 높이고 있다.

코 분야의 모든 질환은 김신애 교수가 맡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비염에서부터 잠을 잘 때 본인도 모르게 나타나는 코골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까지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특히, 김신애 교수가 개발한 기능성 코 성형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치료와 미용적 목적을 한 번의 수술로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코막힘을 치료하면서 미용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코의 모양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김 교수는 환자 가슴에서 채취한 연골을 양 콧볼의 일부가 덮이도록 양쪽으로 길게 고정하는 코 성형 수술법인 ‘일체형 비익연골 이식법’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변형권_이비인후과 교수(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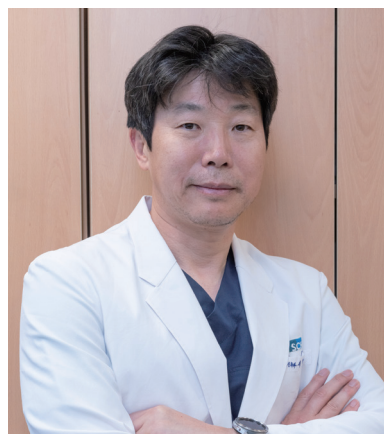
“연구업적이 아닌 진정 환자를 위한 연구에 매진”



변형권 교수는 현재 이비인후과 과장으로서 과를 이끌고 있다. 또한, 두경부암센터장도 함께 역임하고 있다. 서울병원 이비인후과와 센터를 동시에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메이저과가 아닌 마이너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는 기도를 다루거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보는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다양한 질환군 있는 힘든 분야입니다. 또한,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수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과 교수님들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 교수는 두경부암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두경부암 수술에 로봇수술을 도입하고 신기술의 직접 개발에 함께 참여해 이런 기술을 의료선진국에 역수출 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정평이 나있다. “두경부암 분야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난치암 중 하나인 갑상선 역형성암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저의 연구업적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를 위한 연구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변 교수는 “국내 환자들 뿐 아니라 의료 후진국의 환자들을 위한 해외 의료봉사에도 힘쓸 생각”이라며 “후배 의사들도 이비인후과에 대한 애정으로 진정 환자를 위한 연구에 매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소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면서 서울병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치규_이비인후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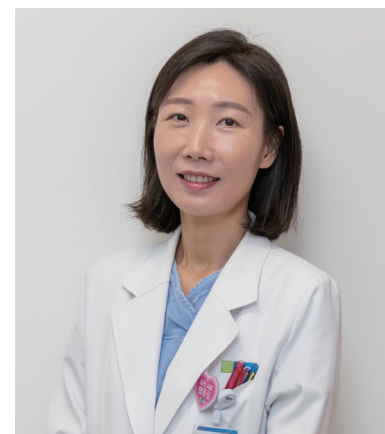
“환자들 위해 돌발성 난청 연구에 매진”



난청 분야가 전문인 이치규 교수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18년 근무하다가 지난해 서울병원으로 합류했다. “천안과 다른 점은 서울이다 보니 접근성이 좋아서 보다 다양한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도 너무 화기애애하고 팀워크와 단합이 매우 좋습니다. 저희 팀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난청 분야 전문의답게 여전히 난청 분야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제일 관심 갖는 분야는 당연히 난청 분야입니다. 그중에서도 돌발성 난청이 제일 마음이 갑니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귀가 안 들리게 되는 환자들에게는 재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환자를 생각하면 이 분야 연구에 더욱 몰두하고 싶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은 아직 완치가 쉽지 않은 분야라 설명했다. “치료되더라도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교수는 “난청으로 타 병원에서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되지 못했던 한 환자가 치료되어 눈물을 보였을 때가 가장 크게 보람됐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정년을 약 10년 정도 남기고 있는 이 교수는 “모든 동료들이 10~20년 후 정년이 될 때까지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올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신애_이비인후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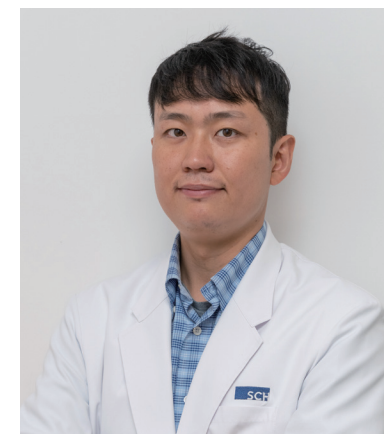
“환자가 기뻐하실 때 가장 행복해요”



이비인후과 교수진의 홍일점인 김신애 교수는 코 전문의이다. 코 전문의답게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수술기법으로 환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치료 목적의 수술과 성형을 접목한 수술이 그것이다. “코 가운데에 비중격이라는 구조가 있고 그게 휘어 숨쉬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좋게 하는 비중격 교정수술과 성형수술을 동시에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많거든요.” 이 수술은 코 중간에 한마디가 휘어 있는 걸 펴는 과정에서 연골을 채취해 이를 성형의 재료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환자 입장에서라도 질병도 치료하면서 얼굴도 예뻐지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죠. 일석이조니까요.” 김 교수는 서울병원 이비인후과가 최고 실력자들이 모인 드림팀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님들 각자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셨지만, 또한 인간미도 넘칩니다. 인간사랑을 중시하는 순천향과도 잘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 팀원들뿐 아니라 환자들 역시 많이 좋아하세요. 서울에 있는 크지 않은 대학병원이지만 지방 환자들도 많고, 팬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김 교수는 “빠른 치료성과를 보며 기뻐하는 환자의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며”며 “팀원들에게는 항상 신경 써줘서 감사하고 지금처럼 화목하고 즐겁게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민석_이비인후과 교수

“여러 분야 연구로 더 많은 환자 살렸으면”



강민석 교수는 군의관을 마치고 올해 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 합류한 막내 전문의다. 전문 분야는 두경부암이다. “저희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과이지만 매우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막내임에도 과장님을 비롯해 모든 팀원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전문 분야가 두경부암이지만 다른 분야 연구에도 욕심이 많다. “연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욕심이 있습니다. 두경부암 연구가 첫 번째이지만 기초분야 연구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특히 침샘 분야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메타분석 등을 활용한 연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의사로서 갖는 목표는 두경부 분야 최고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 분야에 암 환자, 다른 응급질환이 많습니다. 모든 환자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힘든 부분도 많지만, 또한 내 손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강 교수는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자신을 환대해준 모든 팀원에게 더 많은 진료와 연구성과로 보답하겠다”며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이며 월급을 받는 이유”라며 웃었다. 



“학원교육계에 나눔의 문화 확산시키고 싶어요”

매년 1,200만원 정기 후원...‘아동·청소년 건강 수호사업 기금’ 지원

이재식 국어논술학원은 부천 상동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청라 분원에 이어 올해 송도점 개원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청소년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학생들과 더불어 이를 잘 극복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맡고 있는 교육기업으로서 청소년들의 지적 성장뿐 아니라 건강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지역사회 아이들에 대한 후원을 결심했다.

글 전진용 사진 안용현

순천향대 부천병원 사회사업팀에 기부를 문의하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병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던 부천병원에 이재식 원장 부부가 연락한 것이다. 약속을 잡고 만나 자리에서 부천병원 사회사업팀과 원장 부부는 뜻깊은 기부활동에 양손을 맞잡았다. “사실 여러 공공기관 및 단체에 기부를 문의했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반기는 느낌이 들지 않더군요. 오히려 왜? 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천병원 사회사업팀과의 전화에서는 진심 어린 반가움과 응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원장 부부의 기부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이미 유니세프나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해외 자선단체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해 왔기 때문이다. 또 이재식 원장의 어머니는 수십 년간 1년에 1천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나눔의 문화에 익



숙한 가족이다. “뭔가 의미 있는 후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부천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청소년들의 지적 성장뿐 아니라 건강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한 제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병원·부천시와 함께 ‘아동·청소년 건강 수호사업 기금’ 조성

부천병원과 이 원장 부부의 제안으로 부천시 아동청소년과(드림스타트)도 함께 손을 잡아 새롭게 ‘지역 아동·청소년 건강 수호사업 기금’이 만들어졌다. 이 기금은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발굴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힘든 환경에 방치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후원을 할 수 있어 큰 보람이며 가슴이 벅차다”고 전한다. 부천병원 사회사업팀 역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제적 위

기에 빠진 아픈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원장 부부는 지난해 이미 2번에 걸쳐 총 2,400만 원을 기부했다. 현재 드림스타트팀의 지원 대상 아동은 수백 명에 달한다. 이 원장 부부의 후원은 지역 내 취약 아동 중 성장에 문제가 있는 유전, 대사질환 아이들을 위한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원장 부부의 기부에 힘입어 올해는 별도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아동지원 기금’을 조성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부부의 세쌍둥이를 위한 지원에도 힘을 보탰다. 이 세쌍둥이는 임신 23주 만에 조산된 초극소 미숙아로 이름이 김느, 김흐영, 김난이다. 각각 660g, 550g, 540g이라는 극단적 저체중으로 태어나 중증 뇌 질환과 장 질환 등을 앓았다.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

이 원장은 학원계에도 나눔의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학원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나눔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되고 학원들 역시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교육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교육기관으로써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장은 항상 아이들에게 “타인과 함께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기부 역시 아이들에게 ‘더불어, 함께’라는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학원의 기부활동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학원에서 상으로 준 오천원권 상품권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교육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부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아이들은 벌써 100명이 넘었다. 기부한 아이들에게는 기부를 기념하는 예쁜 배지를 준다. 아이들은 이 기부 배지를 가방이나 필통에 달고 즐거워한다. “이런 작은 하나의 행동과 추억이 아이들 가슴에는 자연스레 나눔의 참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역시 스스로 작은 기부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고3 담당한 선생님도 아이들의 입시 기원을 담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이 원장은 “새롭게 오픈하는 송도점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는 화환 대신 더 적은 금액일지언정 하객들을 기부에 동참시킬 계획”이라며 “이런 작은 노력을 통해 학원 교육계에도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웃었다. ■

순천향대서울병원, 네팔 취약지역에 인간사랑 전파

SCH
서울병원

2016년부터
네팔 취약지역 어린이에게 인술 펼쳐



“

네팔 의료봉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



순천향대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그간 소외된 이웃과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의료봉사단을 조직, 무 의촌 농촌이나 도서지역, 사회복지기관, 다문화가정 등 의료 사 각지대를 찾아 인술을 펼쳤다. 또한, 해외로까지 봉사활동 범의 를 확대해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등 아시아 저개발국가 현지 의료봉사는 물론 의료진 무료 초청연수,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 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의료봉사단은 지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연휴를 이용해 네팔 카트만두 사노기웅 취약지역과 바크 나푸르 마누하르 쓰레기 마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번 네팔 의료봉사에는 이성진 진료부원장(안과 교수)과 박병원 의료봉사단장(심장내과 교수)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료진이 참 여했다.

현지 치료 어려운 환자 초청 수술 지원 적극 추진

사노기웅 취약지역에서는 197명의 주민을 진료하였고, 바크나 푸르 마누하르 쓰레기 마을에서는 107명의 주민을 진료해 인간

사랑을 전하고 민간 외교사절 역할도 함께했다.

또한, 쓰레기 마을에서는 십시일반 기부로 500달러를 모아서, 다일공동체 ‘밥퍼’를 통해 300명의 어린이에게 식사를 제공하 고 급식봉사를 진행했다. 박정원 다비치안경 대표도 이성진 교 수의 진료를 받은 304명 중 78명 주민에게 돋보기안경을 후원 해 힘을 보탤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016년부터 일 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 연휴를 이용해 네팔 의료봉사를 진행해 왔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현지 의료봉사를 중단 했지만, 의약품과 생필품 지원은 지속해 왔다.

송지영 순천향대서울병원 사회사업팀장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봉 사의 감동을 전했다.

박병원 의료봉사단장은 “네팔 의료봉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봉 사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우리 나라로 초청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SCH

부천병원, 항저우 아시안게임 의료지원

SCH

부천병원

김호중 교수,
근대5종 금메달리스트 이지훈 선수 담당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 김세찬 전공의가 이지훈 선수를 진료하고 있다.

부천병원이 최근 근대5종 금메달리스트 이지훈 선수의 정밀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등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의료지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지훈 선수는 아시안게임 승마 연습 중에 발생한 낙마 사고를 극복하고, 불굴의 투지로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따내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수다. 부천병원은 대회 기간에 김호중 응급의학과 교수를 항저우 아시안게임 의료지원 팀장으로 파견했다. 김 교수는 이지훈 선수의 해당 경기를 의료지원했으며, 낙마 사고 시 신속한 조치로 이 선수가 무사히 경기를 끝마칠 수 있도록 힘썼다. 경기 후 이지훈 선수가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 교수는 9월 26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재활의학과 이승열 교수가 회진 중 이지훈 선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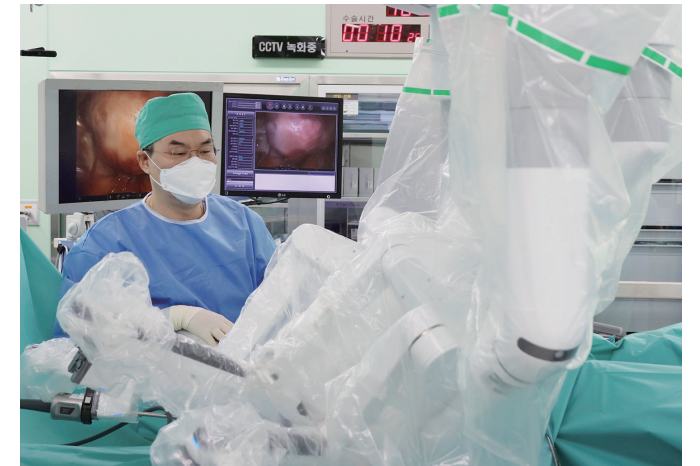
이 선수와 동행해 안전한 귀국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입원을 도운 후, 다른 선수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9월 27일 항저우로 다시 돌아갔다. 김호중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지훈 선수가 경기 전 사고를 잘 극복하고 메달을 2개 획득해 현지 의무 위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를 부상과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이승열 재활의학과 교수는 “이 선수의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낙마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어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최대한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며, “주치의로서 이 선수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수호 교수, 다빈치Xi 로봇수술 1000례 돌파

10월 23일 기준 전국 병원 산부인과 교수 중
로봇수술 건수 1위

흉터 거의 남지 않아 환자의 미용 만족도 높아

정수호 교수는 2017년 로봇수술을 시작해 부인과 암수술, 전자궁절제술, 자궁근종절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등 다양한 부인과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을 시행해 왔다. 2019년 2월 다빈치Xi 단일 시스템을 보유한 전국 병원 산부인과 교수 중 로봇수술 건수 3위(134례), 2021년 4월 경기 서부권 병원 산부인과 교수 중 로봇수술 건수 1위(500례)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로봇수술 1000례 중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암 환자가 184건으로 18%를 차지해 여성 중증질환 최적 치료에 앞장서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로봇수술은 360도로 회전하는 로봇 손의 관절로 작은 공간에도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손 떨림 보정 기능이 있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최대 15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입체적인 시야 확보로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고 종양 부위만 정확하게 절제한다. 이로써 출혈과 통증, 합병증을 줄여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정 교수는 “로봇수술은 부인과 수술의 핵심인 자궁과 주변 장기의 손상 최소화와 가임 능력 보전에 적합하다. 또, 0.8cm의 작은 구경으로 수술해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환자의 미용 만족도가 높다”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환자가 최적의 치료 방법으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H



1,000번째 다빈치Xi 로봇수술(자궁근종으로 인한 부분 자궁적출술)을 집도하고 있다



산부인과 정수호 교수, 로봇수술 1,000례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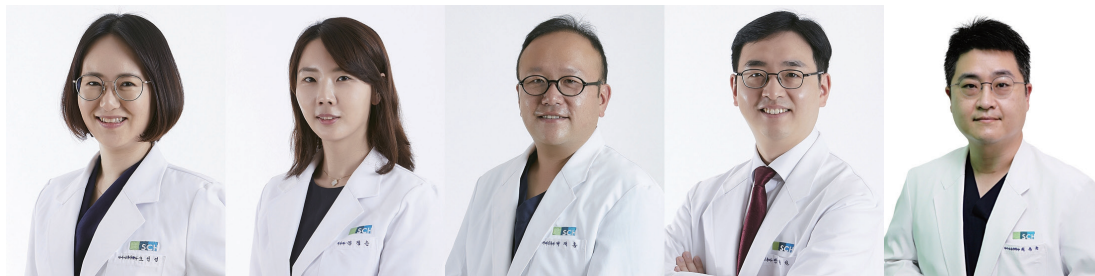


순천향대 부천병원 산부인과 정수호 교수

두경부암 환자 괴롭히는 ‘구강점막염’ 새 치료법

SCH
천안병원

천안병원 두경부암 다학제팀,
국내 최초 효과 입증



좌로부터 ▲조인영(방사선종양학과) ▲김정은(피부과) ▲박재홍(이비인후과) ▲반명진(이비인후과) ▲원용균(방사선종양학과).

천안병원 두경부암 다학제팀이 최근 방사선치료 합병증인 ‘구강점막염’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입안 점막의 궤양으로 출혈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구강점막염은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 등 암치료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이다. 특히 두경부암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의 80% 정도가 겪는다.

‘저출력 레이저 치료’, 효과적인 대안으로 입증

두경부암 다학제팀 조인영 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구강점막염은 환자치료를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존율까지 떨어뜨리는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설명했다.

다학제팀이 제시한 구강점막염 치료법은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광생물변조 치료법(Photobiomodulation therapy)이다. 손상된 구강점막에 적정 강도의 레이저 광선을 쏘임으로써 신속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조인영 교수는 “방사선치료로 구강점막염이 발생한 두경부암 환자 21명에게 주 3~4회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결과, 모든 환자에서 구강점막염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구강점막염의 등급을 1~4로 구분할 때, 치료 환자군의 치료 전 등급은 평균 2.63이었으며, 치료 4주 후에는 평균값이 0.75로 매우 낮아졌다. 치료 후 실시한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설문에서 환자들의 주관적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

조인영 교수는 “지금까지 다양한 구강점막염의 치료 방법이 제시됐으나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진 못했다”면서,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국내 최초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방사선치료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 두경부암 환자들의 치료 지연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는 ‘두경부암 환자의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한 구강점막염의 광생물 변조치료 효과(Effect of a Novel Handheld Photobiomodulation Therapy Device in the Management of Chemoradiation Therapy-Induced Oral Mucositis in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A Case Series Study)’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photonics 2023년 제 10권(제3호)에도 소개됐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 시작

SCH
천안병원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로
통증 감소 및 빠른 회복



최근 천안병원 정형외과가 로봇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작했다. 11월 도입된 로봇은 인공관절 수술에 특화된 자동화시스템(마코 스마트로보틱스)이다.

마코 로봇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안전한 수술 로봇으로 ▲무릎 전치환술 ▲무릎 반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에 모두 활용된다. 로봇은 수술 전 과정에 걸쳐 정밀도와 안전성을 높여 주고, 최상의 수술 결과를 제공한다.

수술 전 : 3D CT 입체영상을 통해 뼈 절삭범위, 인공관절 삽입 위치 등을 환자 개개인의 구조적 특성에 맞춰 정확하게 파악해 준다.

수술 중 : 인대 장력, 관절 균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고, 수술 전 CT를 통해 입력된 범위만큼만 로봇팔로 정밀하게 뼈를 절삭하여 과도한 절삭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수술 도중 실시간으로 하지 길이 차이 및 관절 가동 범위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최적화된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 후 : 수술 과정에서 연부조직 손상과 출혈량을 최소화하여 수술 후 통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다.

기존의 2D 엑스레이 영상을 통해 절삭 범위 및 각도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정밀도, 안전성, 조기 회복 측면에서 우월함이 입증되었다.

특히 기존 무릎 인공관절의 경우 뼈에 구멍을 내 가이드를 장착한 다음 뼈를 절삭하게 되는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뼈에 구멍을 내지 않고 로봇팔을 통해 계획대로 뼈를 절삭하기 때문에 출혈 및 수술 후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료봉사활동

SCH
구미병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료혜택

“

의료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인간사랑·생명존중의 순천향 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진료상담 중인 정일권 병원장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진료상담 중인 김성호 의료봉사 단장



왼쪽부터 김용현 국제사업팀장, 이진희 영상의학과 팀장, 순천향 연수중인 캄보디아 의료진, 짜룽 보통랑쎄이 주한캄보디아 대사, 정일권 병원장, 김영실 의료봉사 부단장/간호부장, 김진현 사무처장



짜룽 보통랑쎄이 주한캄보디아 대사와 정일권 병원장 감사패 전달식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9월 2일(토) 오후 1시부터 본원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 구미지역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정일권 병원장, 짜룽 보통랑쎄이 주한캄보디아 대사, 김성호 의료봉사 단장(구미병원 신경외과 교수, 외과계 진료부장), 김영실 의료봉사 부단장(구미병원 간호부장), 김용현 국제사업팀장(순천향 중앙의료원)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순천향 정신 실현

이번 행사는 2020년 순천향 의료원과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인간사랑·생명존중의 순천향 설립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료봉사는 정일권 병원장을 비롯하여 김성호 의료봉사 단장, 김우석 QI실장(외과), 강승립 교수(영상의학과), 김영실

의료봉사 부단장,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등 35명의 의료봉사 팀과 순천향에 연수 중인 캄보디아 의료진도 함께 참여했다.

의료봉사는 소화기계질환, 신경계질환, 외과계질환 등에 대한 진료와 ▲복부 초음파 ▲골밀도 검사 ▲혈액·소변검사 ▲X-ray ▲심전도 ▲체성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의약품도 제공됐다. 그뿐만 아니라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으로부터 의료봉사를 지원해 준 순천향대 구미병원에 감사패 전달식도 마련됐으며, 순천향 중앙의료원과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증정됐다.

정일권 병원장은 “의료복지가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의료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인간사랑·생명존중의 순천향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결근의 요인
‘직장 내 폭력’이
가장 커



‘직장 내 폭력’



이준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은밀한 폭력.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많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괴롭힘에 힘들어한다.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여러 명의 동료 사람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어울려 다니거나, 자신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하던 대화를 멈추는 낮은 단계의 따돌림에서부터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누구나 꺼리는 업무를 일부러 떠넘기는 구체적인 괴롭힘까지 그 형태는 다양하다. 이러한 직장 내 폭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결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해 국가 관리 필요

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이경재, 이나래)이 제5·6차 한국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해자별 작업장 폭력과 건강 관련 결근의 연관성을 층화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작업장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근로자가 건강 관련 결근율이 높고, 특히 폭력의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등 내부인일 경우 결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결근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준희 교수팀은 작업장 폭력에 초점을 맞췄다. 가해자가 직장 동료일 경우 남녀 모두 건강 관련 결근의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작업장 폭력 무경험 근로자를 기준으로, 고객으로부터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1.55배, 여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1.59배였다. 반면, 직장 동료로부터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2.14배, 여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1.71배로 분석돼 직장 동료의 폭력이 결근 위험을 더 높였다.

이준희 교수는 “직장에서 가해자와 매일 반복해서 접촉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해서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결근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과 성과손실, 기업의 생산성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교수팀의 연구 논문 ‘누가 직장에서 당신을 괴롭혔는가? 근로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작업장 폭력과 결근의 관계(Who hurt you at work? Result from a nationwide survey of association between absenteeism and workplace violence, stratified by perpetrator)’는 J Occup Environ Med 2023년 8월에 게재됐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 증상과 치료법



글 윤현철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직장인 K씨는 최근 갑자기 극도의 불안이 찾아와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겪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그 결과, 불안장애의 일종인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는 증상 등으로 심장질환이나 폐 질환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황장애’에 대해 윤현철 교수와 자세히 알아본다.

스스로 ‘죽지 않는 병’이라는 믿음 갖는 것 중요

공황장애는 갑자기 극도의 불안과 이로 인한 공포를 느끼는 질환이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불안이 수분에서 수십 분간 지속되다가 가라앉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된다.

공황발작이 오면 심계항진, 발한, 떨림, 후들거림, 숨 가쁨, 답답함, 흉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멍함, 공포, 감각 이상 등 증상이 나타난다. 공황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공황장애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스스로 공황장애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질환일 수도 있으므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상담 후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공황장애는 주로 임상적인 면담을 통해 진단한다. 증상이 심장질환이나 폐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한 증상은 아닌지 검사를 진행한다. 다행히 공황장애는 약물치료 시 효과가 좋은 편이다. 약물치료는 보통 항우울제로 알려진 SSRI 등 약물이 효과가 좋은 편이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어서 초반에는 항불안제 등 효과가 빠른 약물과 같이 사용하는 편이다. 그 밖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몸의 여러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이완요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공황장애 환자는 공황발작이 일어났던 상황을 과도하게 회피하게 되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치료를 유지하면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공황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진 스트레스, 술, 과도한 카페인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약물치료로 공황장애가 호전되기 시작하면,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제대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므로 약물 복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황장애는 스스로 ‘죽지 않는 병’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검사를 통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주지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신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또, 공황발작이 시작되었을 때 신체 반응을 줄이기 위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발견 어려운 '담도암'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담도(담관)는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인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운송되는 통로다. 이 통로에 생기는 악성종양이 담도암이며, 생기는 위치에 따라 간 내 담도암, 간 외 담도암으로 나뉜다.

환경+유전 요인

담도암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 다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몇 가지 위험인자는 있다. 경화성 담도염, 만성간질환, 췌담관 합류 이상, 담관낭종 같은 선천성 담관 확장증, 간흡충과 같은 기생충감염, 간내 담석증 등이다. 고령과 가족력 역시 위험인자다.

간문부 담도암 많아

담도암 발생 빈도는 동양권이 서구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담도결석과 간흡충증(간디스토마증) 환자가 많다. 과거에는 민물고기 섭취로 간흡충에 의한 발생이 많았지만, 현재는 고령화, 담도염, 만성 간질환 등으로 주요 위험요인이 바뀌었다. 환자들은 보통 무증상 황달이나 체중감소로 진료실을 찾고, 담도가 좌우로 갈라지는 분지에 생기는 간문부 담도암이 가장 많다. 담도암 중 간문부 담도암의 치료가 가장 어렵다.

조기발견 어려워

담도암은 조기진단이 어려운 암 중 하나다. 특정 종양표지자가 없고, 일반 건강검진에서도 여러 검사를 하지만 복부 CT나 MRI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초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위·대장 내시경으로는 발견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종양이 커져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복부 초음파에서도 발견이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담도가 막혀 황달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복부 초음파 뿐만 아니라 CT 검사도 포함하는 검진이 많아져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CT, MRI 그리고 ERCP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 종양표지자 수치의 상승이 있거나 복부 초음파에서 담도 확장이 관찰될 경우, 복부 CT와 MRI가 진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검사가 된다.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흉부 CT, PET-CT 등도 시행한다. 그리고 종양 침범 부위 확인뿐만 아니라 조직·세포



글 이태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검사, 황달 배액을 위한 담도 스텐트 삽입 등 여러 목적으로 ERCP(담도 조영술)을 시행한다.

최첨단 담도내시경 '스파이글래스'

최근 ERCP(담도조영술)에 사용하는 담도 내시경의 발달로 담도암의 진단율과 치료효율이 크게 높아졌다. 스파이글래스라는 최첨단 담도 내시경이 임상에서 활약 중이다. 내시경 안에 다시 작은 내시경을 넣는 방식의 스파이글래스는 제거가 어려운 담석을 파쇄하는 시술은 물론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조직학적 정보를 제공해 담도암 진단과 치료에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모니터 화면이 아닌 육안으로 담도 속을 직접 관찰하며 조직검사와 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실패율은 매우 낮다.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

특히 조직검사 실패는 환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치료 또한 지연시키는 데, 스파이 글래스는 정확한 조직검사로 빠른 치료를 돕는다. 그뿐만 아니라 절제 범위와 수술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평가해 줌으로써 수술 전 치료계획은 물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의 계획 수립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정기 검진 매우 중요

발견이 늦다 보니 담도암 치료는 여전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암 검진, 직장검진 등은 거르지 말고 받아야 한다. 가족력이나 담석증 같은 기왕력이 있으면 더욱 정기 검진은 필수다. 만성피로, 잦은 복통과 같은 증상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상소견이 보이면 소화기내과를 방문해 정밀검진을 받아야 한다. 수술 가능 단계를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의술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수술 가능 단계로 발전시키고, 생존율도 높일 수 있다. 



“눈물이 많이 나요”

눈물 흘림이란, 울지 않아도 눈물이 자주 나고 흘러내리기도 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인되지만, 이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슬프지도 않은데 항상 눈물이 고여있거나 흐르는 경우, 눈곱이 잘 생기고 빨갛게 충혈이 되는 경우, 눈가 쪽 피부가 짓무를 때는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물 흘림의 원인

눈물 흘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물의 분비 자체가 많아져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건성안이 있는 경우, 속눈썹 몇 가닥이 눈을 찌르는 첩모난생이나 눈꺼풀 속말림으로 전체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 눈꺼풀 속말림으로 눈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 눈물샘이 자극되어 눈물이 많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뇨장애약의 한 종류인 부교감성 약물이나 치매약의 한 종류인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물에 의해서 자극이 되어서 눈물의 분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결막염 등의 염증이나 종양, 뇌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 배출되는 경로가 막혀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눈물은 윗눈꺼풀 바깥쪽에서 생성되어 아랫눈꺼풀 안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눈물이 배출되는 기관은 눈물점, 눈물소관, 눈물주머니, 코눈물관으로 구성되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눈물이 배출되지 않아서 눈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림의 치료

눈물 흘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눈물 분비가 많아진 것인지, 배출 경로가 막힌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눈물소관 관류검사를 시행합니다. 눈물의 분비가 많아진 경우에는 해당하는 원인을 찾아서 교정합니다. 건성안의 경우에는 눈꺼풀 온찜질이나 인공눈물 등의 다양한 안약으로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첩모난생의 경우 눈썹을 뽑거나 전기소작술을 시행해볼 수 있으며, 눈꺼풀 속말림이나 눈꺼풀 겉말림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약물을 다른 성분의 약물로 변경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배출되는 경로가 막힌 경우에는 막힌 경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눈물주머니 조영술이나, 눈물길 미세내시경 등의



안장환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안과 교수

검사를 시행합니다. 눈물점이 좁아진 경우에는 눈물점 성형술, 코눈물관이 좁아진 경우에는 실리콘관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코눈물관이 아예 막혀있는 경우에는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림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후천 코눈물관 막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해질 수 있으며, 눈물소관염이나 눈물주머니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눈물 흘림에 도움이 되는 습관

눈물 흘림에서는 눈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눈을 비비면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컴퓨터 작업이나 장시간 화면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 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더라도 눈을 보호하는 인공눈물을 넣어주면 오히려 눈물이 나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 외부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Constellation Vision System

구미병원, 유리체 망막 수술을 위한 미세절개 수술장비
콘스탈레이션 비전시스템

미국 FDA 최초 승인 획득!

안전한 수술

- 비침습성 유체 흐름 센서 기술 탑재
- ▶ 수술 중 일정한 안압 유지

효율적인 수술

- 빠른 속도로 유리체 절제, 경사진 팁 디자인
- ▶ 망막 수술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

빠른 시력회복

- 약 0.5mm의 미세절개
- ▶ 수술 후 불편감 감소
- ▶ 빠른 시력 회복 및 치료

문의 : 안과 외래 054-468-9250
안과 진료 후 예약 가능



‘2024 THE 세계대학평가’ 영역별 순위 두각

순천향대(총장 김승우)가 최근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2024 THE 세계대학평가 영역별 순위’에서 의학, 생명과학, 컴퓨터과학, 공학 등 4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THE 세계대학평가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2010년부터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전 세계 상위권 대학들의 순위를 매기는 평가이다. 순천향대는 △의학 분야 국내 15위, 세계 500위권, △생명과학 분야 국내 15위, 세계 600위권 △컴퓨터과학 분야 국내 21위, 세계 600위권 △공학 분야 국내 26위, 세계 800위권에 이름을 올려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지난해 기준 세계 순위권이 상승했다. 순천향대는 올해 ‘2024 QS 세계대학평가’ 세계 1001위~1201위를 달성하고, ‘2024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대학 순위권(1201~1500), 국내 대학 28위에 올랐다. 또한, ‘2024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200위권에 올랐으며, ‘건강과 웰빙’ 분야는 국내 1위, 세계 25위를 달성해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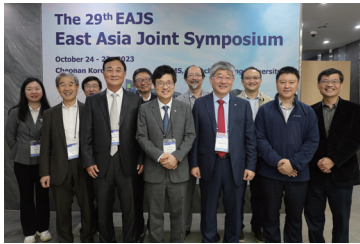


전국체전 테니스 남자단체전 금메달

순천향대는 지난 10월 18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테니스 대학부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국체전 대학부 남자 단체전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목포 부주산 테니스코트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대학 1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순천향대가 충남 대표로 출전했다. 순천향대는 단체전에서 박민수(사회체육학과, 1), 엄두현(사회체육학과, 2), 오범찬(사회체육학과, 1), 추석현(사회체육학과, 4) 등 4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제29회 동아시아 공동 심포지엄...의생명 분야 글로벌 석학 초청



순천향대학교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천안 라마다 앙코르 호텔에서 ‘제29회 동아시아 공동 심포지엄(EAJS, East Asia Joint Symposium)’을 개최했다. EAJS 심포지엄은 아시아-태평양 분자생물 네트워크(A-IMBN) 초대 회장이었던 故 Ken Ichi Arai 교수(동경대 명예교수, 前 SBI Biotech 회장)와 임정빈 교수(순천향의생명연구원 초대 원장, 現 순천향대 석좌교수)가 주축이 되어 지난 1994년부터 시작한 심포지엄으로,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일본 동경대 의과학연구소, 서울대 유전공학 연구소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의생명 분야 학술대회다. 심포지엄은 ▲대사와 질병 ▲분자 및 세포 생물학 ▲생화학과 단백질체학 ▲암 ▲신경 과학 ▲신호 전달 및 약물 발견 ▲줄기세포와 재생 ▲초대 회장을 기리고,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Ken-Ichi Arai Award 시상식 및 수상자 강연 ▲젊은 연구자 주제발표 등 총 9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문종석 교수가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별아교세포의 병리학적 변성’을 주제로 영예의 ‘Ken-Ichi Arai 상’을 수상했다.

아세안 8개국 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가 KF(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와 협력해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주간 아세안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 KF KASI 공무원 펠로십’ 초청 연수를 시행했다. KF KASI(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공무원 펠로십은 아세안 공무원 중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KF(한국국제교류재단)가 주관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순천향대 국제개발 협력센터(센터장 유병욱)와 한국어교육원(원장 정윤경)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이번 연수는 아세안(ASEAN)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적 한국 이해와 우호적 인식 형성 및 한국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총 8개국 20명의 다양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 머무는 8주 동안 순천향대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고, △한국학 특강(한국 문화, 정치, 경제, 외교정책 등) △한국 사회와 공공정책 이해를 위한 현장 체험학습 △태권도, 사물놀이 등의 한국 문화체험 △국별 보고/엑선플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NTI, 순천향대서울병원에 유아용품 기부



의료 소모품 제조 공급업체인 (주)NTI(대표 박현)는 10월 26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에 1천5백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기부했다. 박현 대표는 이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찾아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이정재 병원장을 만나 아기띠(베이비캐리어) 50개를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정재 병원장은 “육아 중인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주)NTI는 병원을 가장 잘 아는 회사를 모토로 수술포와 수술가운, 마스크, 넬스캡 등 수술 관련 소모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회사다. 박 대표는 지난 7월부터 병원 협회에서 정년퇴임 하고 (주)NTI 대표로 취임해 CEO로 활동하고 있다.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연구 진행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중앙혈액내과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산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준 항암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췌장암을 치료하는 중위험 임상연구과제에 선정됐다. 1차 이상의 표준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골수 유래 수지상세포에 암 항원을 인식시키고 면역관문억제제를 병용 투여하여 항암치료효과를 극대화해, 평균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췌장암 환자의 암 진행을 막거나,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연구다. 순천향대학교 중앙혈액내과(책임 연구자: 원종호, 참여 연구자: 이남수, 이민영, 김경하, 윤석윤)와 파미셀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순수회 마음나눔 바자회 개최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수간호사회(회장 최경희)는 10월 19일 동별관 지하 이현옥홀에서 ‘순수회 마음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최경희 회장은 “순천향50주년을 기념하고, 따뜻한 인간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바자회를 준비했다”며 “큰 관심과 정성을 보내 주신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바자회 수익금 5백여 만원은 순천향나눔회에 기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제50회 복부초음파 및 내시경초음파 진단 워크숍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소화기내과는 10월 22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50회 복부초음파 및 내시경초음파 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50회를 기념해 외부에서 개최했다. 초음파의 기본과정, 심화 과정,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상부위장관, 하부위장관, 상복부 초음파 핸드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장영교수 아태간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발표상 수상



장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간학회 국제학술대회(APASL STC 2023)에서 최우수 발표상(Best Presentation Award-Plenary Session)을 수상했다. 장영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만성 간 질환 환자에서 발생한 급성 간부전에서 동반되는 여러 장기부전의 발생 순서와 예후(Liver Failure versus Organ Failure in Acute on Chronic Liver Failure: Sequence and Consequence)’에 관한 연구 결과이다.

류담 전임의, 젊은연구자상·최우수 발표상 수상



류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간학회 국제학술대회(APASL STC 2023)에서 구두 포스터 발표회 부문 젊은 연구자상과 최우수 발표상을 받았다. 류담 전임의가 발표한 내용은 ‘알코올 섭취에 대한 간과 장 보호로 숙취 증상을 줄여주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Reduces Hangover Symptoms with Protection of Liver and Intestine against Alcohol Consumption)’에 관한 연구 주제이다.

부천병원, '건강과학 CEO과정 제1기 입학식' 개최



부천병원이 9월 7일 오후 6시 메이필드호텔 서울 오키드 홀에서 '건강과학 CEO과정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 CEO과정은 'CEO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는 신념 아래 2003년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운영해온 '성공적인 CEO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2023년 부천병원에 새롭게 개설됐다. 부천병원 건강과학 CEO 과정은 앞으로 약 10개월 동안 분야별 의학 교수진의 흥미로운 건강 강의, 초청 명사 문화·예술 특강, 동문 및 주치의와 다채로운 교류 활동이 진행된다. 또, 의료진과 1:1 주치의 결연, 5년간 부천병원 VIP 우대, 프리미엄 숙박 검진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신웅진 병원장, '양성평등진흥 유공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상'

신웅진 병원장이 최근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장으로서 양성평등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웅진 병원장은 2021년 1월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를 유치하고 경기 서부권역 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도왔다. 특히 진료와 및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사례회의 등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했다. 2023년 5월까지 총 1,150여 명에게 26,114건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빠른 일상 복귀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병원 중앙혈액내과 박성규 교수,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선출'

박성규 교수가 최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9월부터 2년간이다.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1996년 창립되어 회원 수 1천5백여 명에 달한다. 최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전문 의료진뿐만 아니라 세포치료제 연구자 및 바이오산업 분야의 종사자 등도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신임 박성규 이사장은 순천향의 대를 졸업해 현재 순천향대 부천병원 중앙혈액내과 교수로 근무하며 조혈모세포이식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의 꾸준한 연구 성과와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부천병원, '카자흐스탄 명예의료인 위촉 및 중앙임상병원과 업무협약'



부천병원이 10월 3일 카자흐스탄 저명 의료인 7인을 '명예 교수'로 위촉하고, 대통령실 직속 의료기관인 '알마티 중앙임상병원'과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카자흐스탄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위촉된 명예 교수 7인은 앞으로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천병원과 의학 교류 및 의료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부천병원과 알마티 중앙임상병원은 국제 의료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최신 지견을 공유하며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기술 자문과 견학 협조, 검사의뢰 및 화신,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상호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전망이다.



문형준 교수, 대한응급의학회 최우수 리뷰어상 수상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문형준 교수가 2023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리뷰어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리뷰어상은 대한응급의학회가 학회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논문 심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응급의학회 고시위원으로 활동 중인 문 교수는 지난 10년간 학회 제출 임상논문들에 대한 리뷰를 담당해왔다.

충남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충남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천안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센터 회의실에서 박형국 심뇌혈관질환센터장, 이성수 충남금연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충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병원에 입원한 흡연환자의 금연서비스 지원 ▲심뇌혈관질환 및 금연사업 정보교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금연 교육·홍보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병원 연수강좌 및 친교행사 개최



천안병원이 지역 협력병원을 대상으로 연수강좌 및 친교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만찬 후 박상흠 병원장 환영사, 박보연 충남도지사회장 축사, 연수강좌 순으로 진행됐다. 연수강좌에서는 ▲심혈관센터 협진 100% 활용법(심장내과 김희동 교수) ▲뇌혈관질환치료,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신경외과 윤석만 교수) ▲효과적인 재활치료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재활의학과 김수아 교수) ▲효과적인 전립선암 검진 전략: 최신경향(비뇨의학과 김시현 교수)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의 조기진단(정형외과 정기진 교수) 등이 발표됐다. 천안병원의 현재 협력병원 수는 총 765개(충남지역 병원 635개 포함)다. 천안병원은 협력병원들과 함께 진료 및 검사 의뢰, 진료 및 검사 결과 화신, 환자 역회송 등 모범적인 의료전달체계 운용을 통해 지역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박상흠 병원장, 환자안전 공로 복지부장관 표창



천안병원 박상흠 병원장이 환자안전 제도 공헌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환자안전의 날(9월 17일)에 즈음해 환자안전 제도 정착 및 환자안전 활동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박상흠 병원장은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 등 환자안전에 최우선 하는 병원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별도의 전담 조직들을 설치하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환자안전 활동을 독려해왔다. 전담 조직들은 중대재해예방팀과 안전보건팀으로 구성된 안전총괄처를 비롯해 QI실, 환자안전위원회, 다학제 낙상 TFT 등이다. 박 병원장은 또 경영진, 부서장들과 함께 병원 내 구석구석을 돌며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찾는 환자안전라운드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환자안전의 달(9월)을 제정하고 매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병원 내 환자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상흠 병원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수고한 2500여 교직원들을 대신해서 수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들과 함께 환자안전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갈 것"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감염관리수칙을 준수하고, 감염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병문안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장기이식센터, 카카오톡 채널 개설



천안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배상호)가 최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센터가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간, 신장, 폐장 등 장기이식 관련 다양한 건강정보가 제공되며, 의료진과의 1:1 문의 및 상담도 가능하다. 채널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의 돋보기 모양 검색창에서 '순천향대천안병원 장기이식센터'를 입력하면 찾을 수 있으며, +표시의 채널추가 버튼만 누르면 센터와 연결된다. 배상호 센터장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상담 받고, 장기이식에 관한 정확한 건강정보도 얻을 수 있는 쌍방향 채널"이라면서, "장기이식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관련 환자들에게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병원, 아동학대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9월 12일 오후 2시,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의 역할과 아동학대 의료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위해 지역내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황성일 아동보호위원장(재활의학과 교수)을 비롯하여 아동보호지원,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지자체 아동보호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팀, 경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새싹지킴이병원, 아동권리보장원, 경북도청,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자 및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새싹지킴이병원 사업소개 ▲아동학대 선별도구 FIND교육 ▲아동학대 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실무자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의료적 지원체계, 현장의 문제점, 실질적 요청사항, 사례공유, 질의응답 등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영유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영유아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을 주축으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대응체계를 보완·강화할 예정이다.



구미병원, 11월 23일(목) 개원의 연수강좌&협력병(의)원 만남의 장 개최

구미병원은 11월 23일(목) 본원 대강당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개원의 연수강좌&협력병(의)원 만남의 장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강좌는 ▲응급상황과 시력교정술(안과 안장환 교수) ▲CPR 최신 지견(응급의학과 강희도 교수) ▲양성항문질환의 수술적 치료(외과 최광현 교수) ▲Z drug의 적절한 사용법(정신건강의학과 성형모 교수) 등 다양한 최신지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11월 20일 까지며, 기타사항은 구미병원 진료협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 서경대학교 환경보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구미병원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윤성용)는 10월 18일(수) 용산역 회의실에서 서경대학교 연구정보 환경보건센터와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윤성용 센터장을 비롯하여 이철민 센터장(서경대학교 연구정보 환경보건센터), 최재원 사무국장(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환경보건센터의 효율성 재고와 지속 가능한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보건 및 독성(중독) 정보 공유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생활화학제품 노출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활동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 지정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5년간 생활화학제품과 화학물질의 독성에 의한 인체 건강 영향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미병원, 임산부 직원 배려 캠페인 실시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10월 10일(화) 12시 본관 지하1층에서 제18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산부를 이해하고 배려, 격려하기 위해 “임산부 직원 배려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일권 병원장을 비롯하여 김진현 사무처장, 김영실 간호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정일권 병원장의 따뜻한 격려와 함께 비타민과 아기용품 등이 들어 있는 임신 축하 꾸러미 선물 박스를 지급하고 ▲임산부 관련 퀴즈 풀기 ▲응원메시지 전달식 ▲배우자 임신 축하받기 ▲자체 제작한 임산부 배려 배지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려 5행시 사전 공모를 통해 25명을 추첨하여 소정에 선물을 증정하였으며, 원내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는 등 전 교직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정일권 병원장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리 모두의 긍정적인 인식과 임산부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임산부 교직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복육 환경조성, 존중받고 공감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